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1. 1.(수) 06:00 < 11.1.(수) 석간 > 배포 2023. 10. 31.(화)

유럽연합(EU) 통상총국과 경제·통상 협력 강화 논의

- 한-유럽연합(EU) 공급망, 탄소중립, 디지털 통상협정 등 협력 확대방안 논의
-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역외보조금 등 유럽연합(EU) 경제법안의 우리 기업 부담 요인 최소화 강조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11. 1.(수) 한-유럽연합(EU) 자유무역협정(FTA) 무역위원회 계기 방한 중인 마리아 마틴-프랫(Maria Martin-Prat) 유럽연합(EU)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하며, 한-유럽연합(EU) 간 경제·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
양병내 차관보는 올해는 한국과 유럽연합(EU)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로, 지난 5월 정상 방한이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·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, 양국의 지속적인 무역 확대를 위해 유럽연합(EU)의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, 역외보조금, 과불화화합물(PFAS) 규제 등 환경·경쟁 규제들이 도입·시행되는 과정에서 무역 규범에 합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기업 부담 요인이 최소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 또한,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으로 세계(글로벌)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며, 첨단산업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라고 요청하였다.

양병내 차관보는 한-유럽연합(EU) 디지털 통상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전자상거래, 데이터 사업(비즈니스) 활성화 등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신기술에 대응한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,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 협상을 시작하여 논의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하였다.

마지막으로 양 차관보는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(Carbon Free Alliance)을 유럽연합(EU) 측에 상세히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통상정책국 구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이상헌 (044-203-5660)
		담당자	서기관	정다연 (044-203-5666)
	신통상전략지원관 디지털경제통상과	책임자	과 장	고장원 (044-203-4880)
		담당자	사무관	김보현 (044-203-488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